

축평원 서포터즈 첩보기, 첫 워크숍의 기록

고객홍보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서포터즈

「고유 명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홍보 지원자들의 통칭. 축산 관련 학과생들을 주축으로 한다. 2015년 수도권대 재(휴)학생 10명과 더불어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6년에는 수도권 및 충청권 9개 대학, 총 20명으로 확대·구성됐다. 5월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활동 예정.

2015년 이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기관 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대학생 서포터즈. 온라인 활동 기반, 오프라인 미션 수행을 함께 하는데 축산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축산 관련 지식과 젊은 감각을 통해 축산 전문 기관의 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7월 어느 날, 충남 공주 일원에서 워크숍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총격전과 두뇌전을 펼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걸 앞서 접한 모든 정보들과는 다른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그들의 뒤를 밟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직접 확인해봤다.

Report 1 하늘도 허락한 그들의 만남

이어진 장마,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소식에 주춤했던 격정은 극으로 달렸다. 만에 하나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도 짜며



서포터즈들이 첫 공식 외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반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행사 당일의 날씨는 장마나 태풍 걱정이 민망하리만큼 화창했다. 오히려 폭연주의보로 경보 메시지까지 나왔다. 불어난 물은 멋진 경치를 만들어 서포터즈들을 맞았고, 비 대신 눈부실 만큼 화창한 날씨가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Report 2 서포터즈, 감춰진 스나이퍼의 면모를 볼내다

이날 중간기점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 본원에 모인 서포터즈와 멘토들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첫 워크숍 프로그램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전차 산으로 접어들어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버스를 버리고 마중 나온 차로 갈아탄 후 좁은 산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길 끝 창고와 주택 몇 동이 어우러진 곳에 도착한 이들은 갑자기 뺨뺨에 검정색 긴팔, 긴마지리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완전무장을 마친 서포터즈들에게는 방탄조끼와 함께 총기 사용 교육이 실시됐다. 총과 총알까지 배부 받는 이들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 일단 실제 사격훈련을 먼저 하고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다들 앞에 드럼통을 향해 조준하고 한 발씩 사격하겠습니다.”

축평원의 서포터즈라더니, 총??? 놀라움이 가실 새 없이 이들은 갑자기 2팀으로 나눠 총격전을 시작했다. 그런데..., 속았다. 페인트 총알이다.

하지만 여전히 놀랄만한 포인트는 있었다. 처음엔 고개도 못 내밀고 우르르 총알만 쏟아 내다 싶더니 곧 날아오는 총알 따위 무서워하지 않고 우뚝 서 조준 사격을 하는 이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여성 스나이퍼도 있었다. 혹시 나중에 이들이 평가사가 되어 등급판정인을 짚게 되면 백발백중, 확실하겠구나. 뭐가 용두사미인 결론이지만 사실이 그랬다.



VS



Report 3 비웠다면 채워라! 단, 축평원의 클래스는 남달랐다
 무더위에 땀을 쏟으며 든든히 먹은 점심 따위 깨끗이 뱃속에서 지워낸 이들. 그들에겐 꿀 같은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 여기서도 축산 전문 기관, 축산불품질평가원의 클래스는 남달랐다. 무려 돼지고기 중 희귀성 있는 특수 부위인 토시살이 대짜 봉투로 훑 등장한 것이다.

숯살구이에 가장 맛있을 부위로 작업장에서 추천받았다는 토시살. 그리고 다채롭게 준비된 찜과 채소, 소시지의 협업. 이날 총 27명은 토시살로만 40인분을 훌쩍 넘게 먹었다.

Report 4 몸을 썼다면, 이번엔 머리를 쓸 차례!

저녁 후 지연된 일정에 바로 시작된 다음 프로그램은 축평원 골든벨이었다. 골든벨을 올린 이와 해당 서포터즈가 소속된 팀 모두에 선물이 걸려 있어 스케치북과 매직을 무기로 또 다른 분위기의 전투모드가 조성됐다.

긴장감 탓인가(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가), 초반에는 황당한 오답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답을 향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고, 공방은 치열해졌다. 서포터즈들은 식곤증 따위 잊은 채, 한밤에 눈을 빛냈다.

그리고 이날의 승기는 2조 허유행 서포터즈가 잡아 최종 골든벨을 올렸다.

특히 2조는 호주국제대회 참가 등에 따른 2인의 결석으로 총 4개 서포터즈 팀 중 워크숍 참여인원이 가장 적었다. 그럼에도 환상적인 호흡을 뽐내며 이튿날 진행된 플래시몹 만들기에서도 최우수 플래시몹으로 선정되며 소수정예의 힘을 발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서포터즈들은 서바이벌 게임, 축평원 골든벨, 플래시몹 만들기는 물론 축산불품질평가원의 주요 사업과 축산물이력제 관련 보수 교육을 받으며 내신을 키우기도 했다. 지난 한 달 활동을 되짚으며 이어질 활동에 대한 논의도 했다.

제2기 축산불품질평가원 대학생 서포터즈! 이제 몸과 머리를 두루 단련했겠다. 서로 간의 친분을 더 돈독히 하고 멘토·축평원 주최 측과 어우러지며 기관 소속감도 높였겠다. 이제 워전체에 가까워졌다고 판단된다. 1박 2일의 첩보기, 그 결론은 “제2기 서포터즈! 이제 안심하고 그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활약을 지켜보면 되겠다.”이다. ☺